

플라스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비난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석용찬 신임회장 ... 현황파악 못한 날림정책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2월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화남인터스트리 석용찬 사장을 선임했다.

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이와 함께 협회명을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로 바꾸고 지금까지 전개해 오던 플라스틱 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환경부와 석유화학협회가 발족한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 협회에 완전 이관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재활용협회 석용찬 신임회장

신임 협회장에 선임된 석용찬 화남인터스트리 사장은 그동안 포장용기협회의 전신인 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 협회 부회장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인정받아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선출 됐다.

석용찬 회장은 취임사에서 책임 기간동안 미진했던 협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 주력해, 플라스틱포장용기 생산자단체의 권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이를 위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와 감량화 정책의 시행이 용기 제조업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들

의 대화창구 역할을 해 나가도록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재활용협회는 앞으로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효율적인 이용과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혀 플라스틱 포장용기 관련업체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플라스틱 포장용기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7>